소원을 소망으로 박멸하자

(에스겔 28:1~26)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7.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8.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9.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10.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소원을 소망으로 박멸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소원을 소망으로 박멸하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소원과 소망을 임의로 구분해보기로 합니다. 소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바람입니다. 소망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바람입니다. 본래 소원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을 소망으로 박멸하자'라는 제목도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강릉에 오시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상담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몇 주 전에 여자 집사님 두 분이 휴가를

내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녯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영적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평강을 유지하면서 사시다가 막내딸의 문제로 인해서 평강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편이 되어서 집사님과 반목하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적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위로를 바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의 그런 상황이 평생 지속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마음의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집사님의 소원을 박멸해내고 퇴치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하나님 부자 된 마음으로 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놓고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쁨과 만족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쁨과 만족을 가장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집사님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다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박멸할 수 있고 박멸을 해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박멸하고 무엇을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멸해야 하는 것은 소원이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영화 속에서 “바람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돈은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편 신앙적으로 볼 때에 “소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박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금보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반드시 퇴치하고 박멸해야만 합니다.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소원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소원을 갖지 말자!”라는 캠페인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금연캠페인을 보면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소원을 금하자는 의미에서 금원(禁願)캠페인을 벌인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멋진 청년과 예쁜 아가씨가 마음에 소원 갖는 것을 포스터에 그리게 한 뒤에, 쓰레기 하치장에서 쥐가 들끓는 사진을 첨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질 때에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되고 미래에 대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은 괴롭다는 것을 표현해 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원을 박멸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고 싶어 할 때에 말리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식품으로 배를 채워주면 됩니다. 신앙적 상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상담은 대부분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으로

인해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은 불량식품에 대한 식욕과 다름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먹게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소원을 대체시켜주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먹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우 등심이라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불량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불량식품을 먹고 싶어 할 때에 한우 등심을 먹여서 배가 부르게 된다면 더는 불량식품에 대한 식욕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도 이렇게 소원이 소망으로 대체됨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소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소원을 갖는 것도 큰일이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더 큰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뛰지만 실제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은 마음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서 쥐와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장소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곧바로 지옥을 향해 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면 이룰수록 지옥의 대마왕이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 인물로 두로의 왕이 언급됩니다. 두로의 왕이 이렇게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쥐떼를 키웠고 결과적으로 지옥의 대마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앞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을 한 장에 몰아서 언급한 것에 비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는 무려 세 장에 걸쳐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페키키아의 나라인 시돈에 대해서는 두로에 걸치듯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민의 회복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로를 통해 언급된 요인들이 제거된다면 그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로로 상징된 영적인 상태를 살펴봄을 통해 본질적인 신앙적 통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을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의 마음 상태를 보실 때에 이와 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 가운데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주로 하늘 보좌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선민들이 출애굽 했을 때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도 아닌 바다 가운데로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쉽게 나타나는 오해는 아시다시피 두로가 지중해를 통한 해상무역의 왕좌에 앉아있었

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두로의 특성이 바다를 연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 등장한 바가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 가운데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3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태초에 있었던 에덴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와 같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은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즉 두로 왕의 마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암탉이 알을 품듯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생각의 알과 계획의 알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각과 계획이 말씀으로 표현하심을 통해 바다로 상징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두로 왕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생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로 왕이 자기 삶에 대해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소원을 가지고 생각과 계획을 시도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확신에 차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본래 인간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생각의 알을 품는 암탉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계획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듯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르시며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인간이 빼앗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고, 격리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시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두로 왕이 그랬듯이 때로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두로 왕이야말로 멸망하는 인간의 완벽한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모두 두로 왕처럼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대해 생각과 계획의 알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소원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소원을 다 이룬 인물로 두로의 왕을 제시하시고 그의 파멸을 예언케 하심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단 하나의 소원도 갖지 말라는 것

입니다. 대도시에서 쥐떼를 박멸하고 집집마다 바퀴벌레를 박멸하듯이 소원을 박멸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의 삶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멸망하는 인간의 대표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로 왕의 멸망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박멸해야 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로 왕과 같은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하는 동안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삶은 괴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과 시기가 생기는 이유도 소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드러납니다.

한편 3절을 보면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BC.586년경으로써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지혜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두로 왕이 이러한 다니엘을 필요 없다고 여긴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니 자신의 생각을 지혜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4~5절을 보면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금과 은이 보관되어야 될 장소는 곳간이 아닌 금고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의 보화가 넘쳐났기에 금고로는 모자라서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삶이 풀려나가니 두로 왕의 마음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과는 지옥의 대마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75억 인구가 세상의 삶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을 바보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불행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암탉이 알을 품듯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생각의 알과 계획의 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이 땅을 향한 모든 소원을 박멸해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소원이 박멸되지

않고 소원이 들어온 마음 상태를 지나쳐버린다면 주어질 미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암탉처럼 품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나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며 나도 모르는 오장육부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품고 계시고 부화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스스로 세상의 문제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지옥의 대마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 불만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반드시 이 땅에 문제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저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화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과 연관되지 않도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 대한 소원을 하늘의 소망으로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습니다. 소망은 곧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시야를 끊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하늘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승천한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에 진력하다보면 마음에서 세상의 문제와 무게와 질곡과 장애는 다 사라집니다. 두로 왕이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기 전에는 문제가 살아서 날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문제는 박제와 같이 변합니다. 똑같이 존재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에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소원을 박멸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기계는 누르면 정해진 결과가 나타나지만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청소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괴로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원은 마음을 쓰레기하치장으로 만들어서 쥐떼를 끓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하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원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원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원 자체를 없애고 마음으로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다면 육체가 가진 담배 중독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변화도 함께 따라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바람과 소원을 박멸시키고 퇴치시켜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에 대해 소원이 없고 바람이 없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듣는 우리는 소원이 소망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소원까지도 박멸시켜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이 모든 소원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하늘 소망하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소원하는 상태는 불량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우 등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알이 부화한 것이라면 한우 등심입니다.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빌게이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재력을 불량식품으로 여기고 나의 상황을 한우 등심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확신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로 왕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지옥의 대마왕이 되어서 멸망합니다. 소원을 품고 유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두로 왕과 같이 지옥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지옥의 대마왕의 자리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겠다는 소망을 성취함이 기적 같은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소원 없이 산다면 세상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말로 영

적으로 미친 짓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소원 박멸하고 하늘 소망 성취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